

1 이홍재의 세상만사 1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논설고문

‘천국의 눈물’(Tears In Heaven)을 듣는다. ‘기타의 신’으로 불리는 에릭 클랩튼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만든 노래. “당신은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일까요. 내가 당신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말이에요.” 자식의 죽음을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그러나 담담하게 노래한다. “천국에는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눈물이 난다. 자꾸만 눈물이 난다. 천국엔 눈물이 없겠지만 이곳은 천국이 아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텔레비전을 켜건만. 그래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슬프다. 많이 슬프다. 물속에 잠긴 아이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한다.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한다. 그리고 제13의 아이까지. 이상(李箱)의 오감도(烏鬚圖)에 나오는 숫자는 13에서 멈추지만.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서 떨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숫자는 한없이 이어진다.

“내 자식 죽어 가는데 살아서 뭐해.” 부모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돈다. “내 새끼 죽이고 무슨 낱으로 사냐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한 맺힌 부모들의 애끓는 통곡이 팽목항 바다 위에 떠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름. 그걸 ‘단정(斷腸)

의 슬픔’이라 하는데 이 말에 얽힌 사연 또한 애달프다. 옛날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백여 리를 뒤따라 오더니 바로 죽었다. 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인간임에랴.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 공자(孔子)의 제자 자하(子夏)는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한 나머지

피맺힌 부모들의 애끓는 통곡

지 눈이 멀어 버렸다고 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막내아들의 죽음을 앞에서 통곡한다. “아들아,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구나.”(‘난중일기’ 1597년 10월 14일)

세상 부모들이 겪는 가장 참혹한 고통은 바로 자식을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는 참척(慘戚)의 고통이다. 참혹할 ‘참’(慘)에 근심할 ‘척’(戚).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부모는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아마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열흘째다. 참척도 힘든데 거기에 더해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수천 번 씻기고, 수만 번 먹고, 억만 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그 자식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부모의 애절한 심정을 생각하면 또다시 가슴이 미어진다.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지라도 모진 고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 마디 위로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프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니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이니하는 위로나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경험상 잘 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리얼락곳은 활짝 피었는데, 누가 이렇게 4월을 잔인한 달로 만들었을까. 배가 왼쪽으로 기울 때 오른쪽으로 닦 하나만 내렸어도 그렇게 빨리 침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예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기들은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며 달아나기에 바빴던 선장과 선원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 내지 못한 무력한 정부. 현장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찍으려 했던 정신 나간 공무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쩡쨍한데 눈을 씻고 찾아보지

만 그 어디에도 정상은 보이지 않고 비정상만이 관을 찢구나.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치욕과 안타까움과 분노로 몸이 떨린다. 아, 우리 어른들이 죄다 죄인이었구나.

양심과 도덕이 마비된 채 제 몸 하나 건사하려 했던 이기적인 어른들. 이들과는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한 이들이 있었으니. 스물두 해의 꽃다운 삶을 바친 박지영(여·22)씨.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언니는요?”라는 학생들의 다급한 외침에 “선원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였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의인들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수협 통장에 돈 있었니까 아이들 등록금으로 써. 길게 통화 못해. 끊어.” 여수 출신 양대홍(46·세월호 사무장) 씨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말도 가슴을 친다.

생일을 맞은 어머니에게 과거를 선물하며 “건강에 안 좋으니 과거는 조금만 먹어”라는 쪽지를 남겼던 김주아(17) 양의 사연도 안타깝다. 가까이로 탈출했지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친구

구들을 구하기 위해 악몽 같은 배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고 하니. 학생들을 꼭 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을 보고 김 양의 아버지가 했다는 말이 또 우리를 울린다. “우리가 자기 찾느라 헤맬까 봐 그랬던 것 같다”고.

제자들을 끝까지 대피시키다 숨진 교사 남운철(35) 씨.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건네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정차승(17) 군. 학생들에게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며 10여 명의 학생들을 구출한 뒤 숨진 교사 최혜정(24) 씨.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까지 침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 의인(義人)들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세월이 많이 흘러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더라도 우리는 이들만큼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외로운 일을 하고 숨진 영웅들이여. 그리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채 쫓겼고 피워 보지 못한 채 스러져간 아이들이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하니 잘 가서 편히 쉬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기를.

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부디 살아서 돌아오기를. 자·못·미·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수백명 희생됐는데... 승객 몇명 구했다고 용서 되겠습니까”

승객 탈출 돕다 실종... 여수출신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가족

사고 당일 “아이들 구하러 가야돼” 마지막 통화 의사자 지정하자는 말에 “동생은 할 일 했을뿐”

정말 형이 맞을까. 처음에는 수화기 너머 들려온 양석환(49)씨의 말을 의심했었다. “동생이 (세월호 사무장입니다.) 살아 나오면 되겠습니까. 시퍼렇게 어린 학생들이 여태껏 살아 오지 못했는데...”

3살 아래 동생 대홍씨는 세월호 사무장이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소식을 듣고 상황을 묻는 부인에게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니 전화 끊어”라며 도중에 말을 끊었다. 앞서 그는 “수협 통장에 돈이 입금됐으니 큰아들 학비 내”라고 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남편의 전화는 여태껏 걸려오지 않았다. 양씨는 세월호 선장과 선박지 직원들이 승객을 나 몰라라 하며 탈출할 때 배를 지켰다. 오랜 경력, 위급 상황인 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침몰 당시 전원 탈출을 한 직원들과 달리, 양 사무장 얘기는 한줄기 빛줄기와 같이 받아들여졌다. 국민은 양 사

무장의 행동을 전해 듣고 ‘의인’이라고 했다. 그래도 가족들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숨죽여 지내왔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처럼 소리내 울지도 못했다. 매일 차디찬 바다에서 팽목항으로 희생자들이 옮겨올 때마다, 희생자 인상 착의가 진도 체육관 내 전광판에 올라올 때마다 다른 가족들 위에서 지켜보며 마음만 졸이고 있다.

“살아올거야” 하는 믿음, ‘살아왔으면’ 하는 바람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만 키우고 있다. 실종·희생자 가족들 마음 아플까, 거슬릴까 더 신경 쓰는 분위기다. 아니 더했다. 죄인인듯 했다.

“승객 몇 명 구했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희생자들이 몇 명인데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형은 그렇게 말했다. 어린 학생들을 돕다가 여태 빠져나오지 못한 동생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했다. 동생을 ‘의인’(義人),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오가는데도 손사래를 쳤다.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실수로 양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 등 실종된 선사 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출국 금지해야죠.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죽었는데...”라고 했다.

“우리 가족은 (검찰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받을 입장도, 그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형은 그래도 형이다. 동생 얘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 함께 살았던 동생이다. 깊고 컴컴한 바다 속에 있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미안함이 오죽할까.

“처음 동생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내 동생 대홍이는 원래 그런 아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여수시 곡동에서 사는 양 사무장 가족은 지난 1990년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고, 4년 전부터 청해진해운에서 근무해왔다.

세월호 침몰 9일째, 부인과 동직한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그의 두 아들은 이후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김칭화기자 chkim@



답답...막막... 세월호 침몰 9일째인 24일 진도군청에 마련된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실종자 가족 대표단이 신속한 수색작업을 촉구한 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